

순천시, 첨단소재산업단 등 공약 제안

민주당 등 정당에 대선 공약 건의
경전선 전철화 등 18개 핵심사업
지방 소멸 해법 ‘메가시티’ 제시

순천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18개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순천시는 ‘특별자치제 설립 및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신경제거점, 미래 첨단산업 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의 3대 전략과 18개 핵심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전남은 소멸 위험 1위 지역이다.

순천시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남 동부

권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영호남 광역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출범을 지방 소멸 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별자치제 설립 및 메가시티를 실현할 광역인프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전남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전남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미래 첨단산업 벨트 구축 계획도 담았다.

순천시는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시킨센센터 건립 △국가 우주위성 데이터센터 구축 △전남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남해안 생태관광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시범도시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순천 동천하구습지 복원 △동천 국가하천 정비사업 △웰니스 치유 관광산업 메가 구축 △국제 승마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찾은 1,000만 관광객 국가 정원과 연계해 호남권과 남해안남중권 25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콘텐츠·스포츠 클러스터 조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글로벌 콘텐츠 아카데미 및 체험학교 조성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이 포함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세계적 생태 자원, 광역 교통망, 탄탄한 산업기반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며 “이번에 제안한 내용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룰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지난 4~6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과 보성판소리성지에서 전국 319명의 소리꾼과 고수가 경연에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성군 제공

보성서 ‘서편제 소리축제’ 전국 고수들 총출동

명창부 대상 한단영씨

명고부 대상 김강유씨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319명의 소리꾼과 고수가 경연에 참여한 가운데 보성군문화예술회관과 보성판소리성지에서 개최됐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서편제 발상지 보성에서 열리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지역의 예술혼과 민족의 정서를 담아내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조상현 국장의 특별 공연 및 역대 대통령상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은 수준 높은 소리와 북소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올해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은 한단영(38·여)씨가 수상했다. 명고부 대상(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상)은 김강유(25·여)씨가 차지했다.

고성창순 명창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성창순 명창상’은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다은(34·여)씨에게 수여됐다.

올해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주요 경연 외에도 판소리를 배우고 즐기고 느끼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서 전통악기 체험, 소리 따라 부르기, 마술 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축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명창부 본선 및 시상식과 조상현 국장의 특별공연 등을 마을회관 IPTV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 호응을 얻었다.

채희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장은 “보성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장흥군이 최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향우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장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노벨문학도시’ 비전 선포

군민의날 행사...황월연씨 군민의상

장흥군은 최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5회 장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2년마다 열리는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를 야외행사로 치를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으로 행사가 실제 기념식으로 축소돼 진행됐다. 군민과 향우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장흥합창단과 문화공간 예술, 예술단 결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국민의례, 군민

현장 낭독, 군민의 상 시상,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군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장흥군민의 상은 황월연(70)씨가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씨는 무산김 추진위원장으로 어업인들을 설득해 전통 방식대로 산을 쓰지 않는 무산김 양식을 성공시켜 친환경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김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장흥군의 군정 목표와 분야별

슬로건을 제창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비전을 담은 ‘어머니 품 장항’, ‘노벨문학도시 장항’, ‘let's go 안전 장항’,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항’, ‘문화예술관광 융성 장항’을 외치며 지역발전의 결의를 다졌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군민과 향우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준 높은 역사와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에 군민의 하나 된 힘을 더해 길게 흥하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곡성군 공장설립 지원 인허가 사전진단서비스

곡성군이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군은 기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추진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종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위치 정보와 각종 법령,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공장 입지선정 문제와 환경규제 문제도 사전에 안내한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존 공장 관련 민원에 사용하는 팩토리온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입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곡성=류성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여수 미평복지관, 인생학교 학생들과 소풍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소풍같은 인생학교 학생 40여명과 함께 광양 백운산 편백치유의 숲으로 소풍을 떠났다고 6일 밝혔다.

학생들은 백운산 편백나무 숲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학생들은 편백 숲속을 거닐며 백운산의 경관을 감상하고 목공예체험으로 생활용품 제작했다.

소풍같은 인생학교 김종원 교장은 “학생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을 선물하겠다는 학생들과의 첫 번째 약속인 ‘소풍’을 함께해 기쁘다”고 말했다.

소풍같은인생학교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어, 미술, 음악, 체육, 과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농협, 제 24기 여성대학 개강식

광양농협은 최근 대강당에서 제24기 광양농협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개강식에는 신입생 100명을 비롯해 농협 임직원, 행복나눔봉사단, 여성대학 총동장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농협 여성대학은 지역 여성들에게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여성대학은 여성의 자질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공헌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양농협 허순주 조합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조합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어버이날 효 행사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대덕읍 다목적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22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제창하며 어버이의 사랑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경로당 위문, 어린이날·어버이날·명절맞이 행사, 4대 폭력 예방, 불족제 봉사활동, 저소득 김장 나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